

# KOSOVO

## 이성민, 장혜경(은지, 새일) 선교사 88호 선교 소식



“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19

### 사랑하는 동역자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로나 벗어난 상황에서 소식을 드린다는 생각에 즐거운 맘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조금이나마 회복된 일상을 즐기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소식을 드립니다.

### 코소보 상황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곳은 정말 2년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게마다 있던 손 소독제도 이제는 자취를 감춰 소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름이 되니 외국에서 살던 일가친척들이 들어와 이곳 풍습에 따라 음악을 틀면서 결혼식과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라마단 기간에 있었던 일

올 해도 회교 신자들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4월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아주 오래전 부터 다녔던 B는 이번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궁금하여 장선교사가 전화 심방을 했는데, B는 장선교사에게 화를 내었고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자신에게 교회 오라거나 성경을 읽으라는 강요를 더이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올해 이분이 라마단 금식을 하지 않기를 기도했었는데, 자기에게 간섭하지 말하는 말을 하여서 장선교사는 낙심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 모임에 아이들을 초대하러 가야 하는데 부르러 가질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평상시 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을 직접 제 발로 모임에 오게 해 주셔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B는 금식이 끝나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장선교사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예배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는 최조영 선교사님 부부는 나의 허리와 소화 불량을 치료하시기 위해 한시간 이상 운전하여 우리 도시로 오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우리가 초대한 몇몇 현지인을 치료해주고 계신다. 얼마전에는 우리와 동역하는 집시 사역자 블렌디 목사의 아내 울리가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최조영 선교사님이 우리 도시에 오실 때, 만나 볼 것을 권했다. 울리는 그 날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놀라운 간증을 했다. 16년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증이 없는 다리를 만지면서 자기 다리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우리도 기뻐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울리 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최조영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이곳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보고 있다. 내 건강 문제가 오히려 이곳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B외에도 저희 교회에 나오던 E는 수도에 가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졌고 라마단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에트닉에게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면서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이 일을 처리하느라 마음을 조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B와 E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라마단 기간에 감사했던 것은 한국에 계시면서 회교도 선교와 연구를 하시는 이OO 선생님께서 회교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 주셔서 그 기도제목과 가지고 구체적이고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회교도들과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인 장벽들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 기도제목과 알바니아어로 번역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 수 있었고 현지 교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뜻깊은 라마단 기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 방송 인터뷰



최근 이곳 인터넷 방송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저희 가족의 인생을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고, 보통 기자들은 저희 종교엔 관심없이 태권도에만 흥미를 보였기에 도장 사역 홍보 차원에서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편집하여 만든 영상속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기독교 선교사로 소개되고 있어서 조금은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회나 태권도 도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게 되면서 괜히 저희만 긴장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보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뿐입니다.

## 태권도 사역 확장



코소보 수도에 있는 현지인 도장들이 저로부터 승단 심사를 받고 싶어하면서 이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목사 안수

오랫동안 미뤘던 목사 안수를 미국의 IEA(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교단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늦어졌지만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더불어 제가 목사 직분에 합당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소보를 위한 기도 제목

올해에는 몇 차례 공항 폭파, 버스 터미널 폭파, 학교 폭파 위협을 알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협의 발원지를 알 수 없지만 이곳 사람들은 세르비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의 평화가 유지되고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관계가 호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가족 소식

새일이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일주일에 두번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통학이 조금은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4시간 통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큰 도움을 받아 새일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새일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2주간의 방학을 맞이하여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신학 수업을 독일어로 하느라 힘이 들었을 첫 학년을 좋은 성적으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동역자님

지난 기간도 동역자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과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올림



## 연락처

smleekosova@yahoo.com,  
semilee1016@gmail.com,  
카톡:samlee1016  
전화 번호: 0038344334420(코소보)  
070-8246-1434, 010-7431-1434(한국)  
선교 본부: 02-337-7191

선교 소식:

<https://post.naver.com/smleekosova>

## 기도제목

1. 여름 기간에 집중된 많은 가족 행사들로 인해 신자들이 교회에 소홀할 수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2. 어린이 모임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3. 에트닉이 1단을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태권도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태권도 사범으로 잘 준비되어질 뿐 아니라 복음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4. 최조영 선교사님 부부의 방문과 의료 사역을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5. 6월 말에 있을 이사가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집과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6.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7.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도록